

해남군 “국도 1호선 기점 ‘땅끝’으로 바꾸자”

기점 변경 타당성 조사 중 KTX해남노선 연결도 윤곽

해남군이 국도1호선 기점을 땅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도1호선은 목포시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종축 국도로, 현재 기점은 목포 신외항에 위치한 목포대교다.

해남군의 국도1호선 기점 변경 추진은 해남을 잇는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추진되고 있다.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는 지난달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사업 조기 추진을 약속받으며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은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다. 강진~해

남~완도 구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께 착공할 예정이다.

보성~해남~임성을 연결하는 경전선은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10월께 시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후 7월께 운행할 계획이다.

해남군 계곡면에 들어설 철도역사 공사 또한 시운전 기간인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전기시설을 포함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해남에 철도가 지나갈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TX해남노선 연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해로, 군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남도를 방문해 협의 중이다.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1단계 사업으



해남 계곡면에 들어서게 될 철도역사.

해남군 제공

로 추진하고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제주 구간은 추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해남~완도~영암 3개군 공동건의문으로 작성해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국도77호선의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원~신안 압해간 연결공사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3.49km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18%로,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터널 2.7km 중 500m를 굴착 완료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형 국책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차질을 빚고 기업 및 관광객 유치에도 제동이 걸려왔다”며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문화관광 활성화 기대

곡성군의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은 1827년(순조 27년)에 곡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을 기리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년간 추진중에 있다.

이 사업은 정해박해 발생지 인근에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곡성성당을 포함한 순례 코스를 연결함으로써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해박해 유적지대에 위치한 곡성성당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고, 곡성을 모친리 336번지 일대에는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건축물은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이 지난 24일 목포인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의 문화소외 해소와 정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도 22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5월 목포에서 제 53회 전국소년제전과 제 18회 전국장애학생제전을 앞두고 특수학교 청소년들이 장벽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측 요청에 맞춰 풍선&버블 매직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양미란 원장은 “전남 도내 특수학교 청소년들이 소외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이 앞장설 것”이라며 “오는 5월 24~25일 제3회 전남도청소년박람회에도 특수학교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24일 목포인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미래재단 제공

착한가격 업소 늘린다 해남군, 물가 안정 목표

국밥 한그릇 3900원, 남성 이발 1만원 등 해남군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나섰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선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업소별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가능하다. 지난 3월 관내 운영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간판 부착과 함께 인센티브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 등 유형문화재 지정

전남도가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엄사 삼세불도와 조선 후기 인물 임서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 등 4건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로써 도 지정문화재는 총 821점으로 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구례 화엄사 내 각황전 삼세불도, 대웅전 동종, 구층암 동종, 나주 임서 신도비다.

각황전 삼세불도는 1860년 화승 해운당 익찬과 30명의 화승이 조성한 세로 6m가 넘는 대작 불화다. 조선 후기 왕실

발원 불교미술과 제작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작이면서도 안정적 구도와 뛰어난 필력 등 19세기 전라도 지방의 화풍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웅전 동종은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효건이 대표 장인으로 1722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다. 제작연대가 확실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18세기 동종양식과 사장 계열 주종장의 계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구층암 동종은 조선 후기 활

동한 사장 계열의 대표적 주종장인 김성원이 보조 장인 도움 없이 만든 작품으로 제작연대,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나주 임서 신도비는 조선시대 인물인 임서를 기리기 위해 김상헌이 글을 지었고 이경재가 글씨를 썼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불교와 유교문화자원을 원형 보존하고 시·군과 협조해 보존·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를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박간재 기자**

무안항공특화산업 조성 착공 4년만에 완료

무안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항공특화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진한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 4년만에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총사업비 466억원, 면적 35만360㎡ 규모의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11월에 착공했으며 오는 5월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에는 MRO(항공정비), 항공물류, 부품 등의 업종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산업시설용지 중 4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확보했다.

지난 2019년 무안군과 투자협약(MOA)을 체결한 ㈜무안에어로테크닉스는 항공MRO 부지에 대한 분양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7개 기업과 134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향후 산단 분양에 훈풍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음악으로 정서치유’ GS칼텍스, 청소년 프로그램 개강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최호영)이 ‘2024년 동부지역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4일 여수 예술마루에서 ‘2024년 전남 동부지역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최호영 지청장, 정현주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학과장, 문상봉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장,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 부문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9년째 운영 중인 ‘GS칼텍스 마음톡톡’ 프로그램에 올해 4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매주 1회 70분씩 12회 일정으로 예술 치유를 받는다.

청소년들은 GS칼텍스 예술마루와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사들의 지도하에 작사, 작곡, 악기 연주 등 음악을 통한 정서 치유

를 경험하게 된다. 연말에는 프로그램 관계자와 보호자들을 초청해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호영 지청장은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사법기관의 처벌이 아닌 예술적 치유를 통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사법기관의 선도 정책과 기업의 자원 투입, 대학의 전문 인력 활용 등이 효과적으로 융합돼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시킨 관·산·학 협력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개장 내달 1일 새 시즌 돌입

호남 최대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오는 5월1일부터 새 시즌 운영을 시작한다.

25일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온수로 운영되는 실내 워터파크 파도풀에서는 K-POP부터 좀바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아쿠아댄스 클래스와 물놀이 위급 상황 대처 방법을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워터파크 곳곳에 숨겨진 보물 상자를 찾은 초등생 이하 어린이에 디오션 워터파크 이용권과 숙박권 등 경품을 뽑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가 준비됐다.

인피니티풀과 실외 유아풀에는 사전 예약 후 가져 오는 음식을 자유롭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바비큐 존이 마련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물놀이 경험을 선물한다. 6월15일부터 워터파크 시설을 전면 개장하고 여름시즌에 들어간다. **여수=이경기 기자**